투데이 칼럼

악취 관련 주민갈등을 바라보며

강 필 구

고창군청 생태환경과
환경정책팀장

고창군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관련, 군민 갈등이 심화 되는 것을 보면서 환경직 공무원으로 책임감을 느끼며 마음에 담아둔 글을 쓴다.

필자는 1994년부터 27년 동안 환경직으로 고창군청에 근무하면서 악취민원을 포함한 수많은 민원을 접하고 처리했다.

그중 돼지나 소 사육으로 발생하는 축산악취는 건물을 밀폐할 수 없어 공기중으로 확산을 막는 것은 불가항력의 민원이었다.

하지만 사업주와 행정,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성공적으로 악취를 줄여냈던 경험이 여러 번 있다.

여기엔 사업주의 시설투자와 사육두수 조정, 축산분뇨 위탁처리, 군의 사업지원과 기술지도, 주민들의 이해와 환경감시가 있었다.

코를 틀어막았던 냄새가 줄어들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의 말을 들었을 때의 보람과 감동이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있다.

악취는 한 가지 물질의 냄새라기보단 여러 물질이 복합된 냄새다. 사람들에게는 감정적으로 자극해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동반하고 나아가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현재 고창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맺은 업체는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체로, 인접 도시에서 10여년 전부터부터 운영해 왔다.

업체와 같은 계열사는 인접도시에서 주변의 복합적인 문제(하수슬러지처리시설, 폐수처리장 등)로 맞물려 냄새와 관련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 최첨단 방지시설 설치로 눈에 띄는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창군 주민들과 여러 관계자의 견학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악취는 정확한 오염물질 종류, 발생량에 대한 분석, 방지시설의 적정용량 산출, 방지시설의 효율, 송풍기 용량, 시설물의 밀폐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분석·설치되면 '분명' 잡을 수 있다.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와 행정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우선시 된다면, 주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창군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악취 발생원인 분석, 저감시설 설치 제안, 인·허가 서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악취농도와 영향범위 설정 등을 실시할 것이다.

만약에 하나라도 사업주가 고창군의 의견을 수용치 않을 경우 공장설립인·허가를 추진하지 않는다.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최종안을 기업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장설립인허가 역시 불허할 방침이다.

갈등의 해소를 위해 이제는 반목과 갈등이 아닌 열린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적인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으면 갈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가·부를 떠나 생각지도 못했던 모두가 상생하는 새로운 결론도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창군민을 위해 고창군은 존재한다.

군민 없는 고창군 행정은 없다. 고창에서 나고 고창에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군민의 한사람이자, 군민 삶의 질을 책임져야 하는 환경직 공무원으로써 고창군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우리는 군부 쿠데타를 용인하지 않는다"

지난 19일 미얀마 양곤의 흘레단 센터 밖에서 각종 손팻말을 든 시위대가 시위하는 가운데 한 여성이 세 손가락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식수 받으러 공원에 줄 선 휴스턴 주민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휴스턴의 헤이든 공원에서 주민들이 수돗물을 받고 있다. 주 당국은 7백만 주민에게 수돗물은 반드시 끓여 먹을 것을 당부했다. 사상 유례없는 한파로 텍사스 지역 주민들은 전기와 물이 끊긴 채 영하의 날씨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사 설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빅데이터 열풍이 거세지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실제로 각종 매스컴에서는 빅데이터를 주제로 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대규모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급격히 만들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 없이 기존에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사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각종 연구소 및 기관도 계속 늘고 있다.

기업에서는 너도나도 빅데이터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각종 성공 사례가 알려질 때 마다 그 열풍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는 이제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기존 연구나 사업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분석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일은 늘 이뤄지는 방식이었다.

빅데이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소위 "3V"라 일컬어지는 규모(Volume), 다양성(Variety), 그리고 속도(Velocity) 때문이다. 관련 기술을 익히고 어떻게 연구 또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건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본질적 변화이다. 데이터의 속성은 규모의 변화에서 상태의 변화로, 그리고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 바뀌고 있다. 미래의 결과와 패턴에 대한 확률적 예측을 이끌어내는 것이 빅데이터의 핵심이다.

누구나 미래를 내다보고 전략을 수립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데이터의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의 탄탄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규모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데이터 자체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이다. 데이터화를 위해서는 디지털화된 데이터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해질 수 있는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민주평통 '한반도 종전' 시민단체와 협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최근 시민사회단체인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과 함께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협약은 한반도 종전 평화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과 지지 획득을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한반도 평화선언' 온라인 서명 확산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간담회 개최 ▲한반도 종전 평화 지역사회 공론화 활동 등에 적극 힘을 모아갈 계획이다.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의 일부다. 종전선언 논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점화를 해야 한다. 물론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다.

주한미군과 유엔사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정부의 기존 입장일 뿐이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종전선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대체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전망도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해 민·관이 두 손을 맞잡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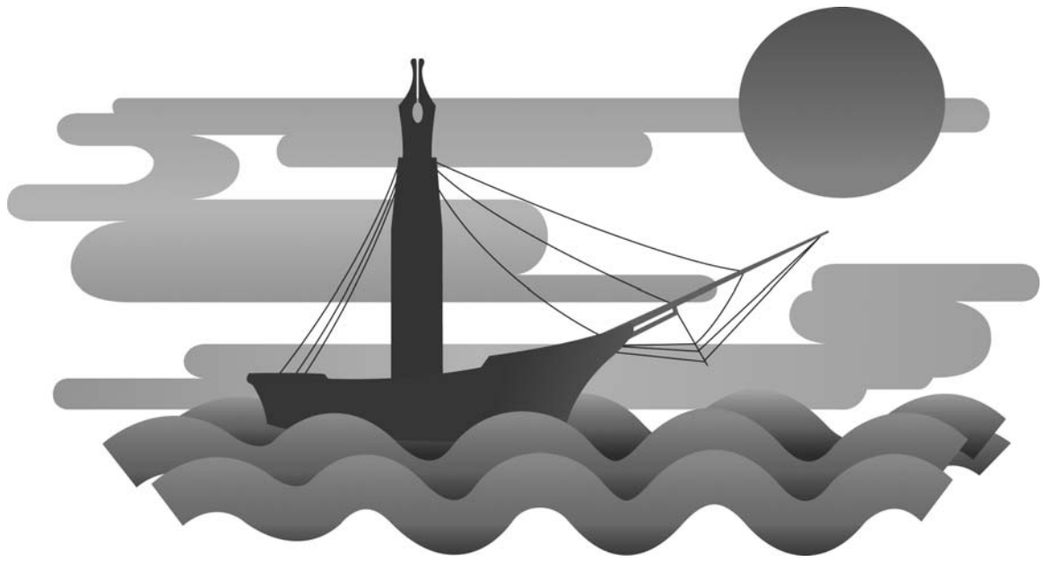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하려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이다. 전쟁을 완전히 종료한다는 뜻에서 '정전'은 '휴전'과 차이가 있다. 1953년 7월 27일 미국·북한·중국은 정전협정을 맺으며 6.25전쟁이 정지됐다. 남한은 이승만 정부가 정전협정 자체에 반대해 서명하지 않았다. 이후 남북한은 휴전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정전협정은 교전을 잠정 중지한 것에 불과하다. 평화 정착과 군사적 적대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뒤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2018년부터 이어진 남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전 선언을 넘어 종전선언으로 나아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북한 핵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추가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반도 종전 및 평화 관련 사업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